

2015.06.02

한·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

-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**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었습니다.**
 - '15.6.1(월) 오후 「한·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」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(高虎城, Gao Hucheng) 중국 상무부 부장은 **한·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** 하였습니다.
 - 양 장관은 영문본·한글본·중문본 등 3개의 한·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'12.5월 협상개시 이후 **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**를 완료하였습니다.

1. 한·중 FTA 효과

10년간 GDP 0.96% 추가성장

- 정부의 “한·중 FTA 영향평가”에 따르면, 한·중 FTA가 발효 후 10년간
 - ① 실질 GDP는 0.96% 추가성장하고
 - ②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
 - ③ 고용은 53,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남.

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, 서비스 시장 개방, 무역장벽 해소,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**더욱 클 것으로 예상**.

2015.06.02

2. 한·중 FTA 효과 ②

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

□ 한·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,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

□ 시장기회 창출

-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, 우리 **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**

□ 비관세장벽 해소

- 통관·인증·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**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**

□ 투자유치 확대

- 한·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**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**,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**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**

3. 향후 계획

□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·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**가급적 조속히 한·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**으로 '한·중 FTA 비준동의안', '한·중 FTA 영향평가 결과', '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'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
국회 절차가 완료되면,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**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.**